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	1면
가. 건설교통국 소관 .....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4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홍순철**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64페이지예요.

KTX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아산시민에서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비 2억, 여기 뭐 소요 예산에는 시비 1억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상세내역에 보니까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1자가 아니라 2자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0 대 50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죄송합니다.

○**홍성표 위원** 앞쪽은 1억이고 뒤쪽으로 2억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현재 그러면 통학하는 학생, 중위 기준소득 150% 이하인 사람, 그러면 현재 통학하는 학생 수나 기준 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비율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이 사업 예산도 도비와 5 대 5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이게 본인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우선 4억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상황을 보면서 도와 5 대 5로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에서 천안은 수도권하고 같이 1일 할인권으로 같이 환승이 되고 우리 아산시는 충남형 교통으로 시작해서 알뜰카드 이용해서 또 별개의 충남형으로 할인을 해주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해서 다니는 대상자가 되실 분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신규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대상자도 발굴하시고 온양온천역하고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현재 아산시에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 중에 정기권을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나 그것도 한번 업무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좋은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철도정기승차권에 학생하고 이런 거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발매 건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성표 위원**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럼 대상자는?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 대상자 중에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하자가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명이 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150% 이하는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나 학생의 경우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제 이야기는 업무 방향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정기 승차권을 하려면 현금으로 산 받은 데이터를 못 뽑겠지만 카드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협조를 구해서 좋은 방향성의 사업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 가능한 협조를 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참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5페이지요.

노후 승강장 전면 개보수 사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관내의 유개승강장이 9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 스마트 승강장하고 밀폐형 승강장하고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신규 승강장 요구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 도색이라든지 부분 수리를 하다 보면 아직도 쓸만한 승강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한두 개를 의자도 새로 도색하고 전부 다 바꾸면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만 해도 승강장이 깨끗해지고 쾌적한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유개 승강장을 전체 다 도색을 하고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건 의자 보수하고 녹슨 것 그다음에 이제 표지판 명이 글씨로 써 있는데 노후되고 퇴색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예전에 민선 4기, 5기 붙어 있는 시정구호 이런 것도 많이 붙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온열의자도 집어 넣고 송풍기도 들어가야지 그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풍기 들어가도 사실은 너무 집이 노후한 데다 좋은 가구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선은 노후 승강장부터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어차피 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 스마트 승강장을 원할 텐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가 체계적으로 1년에 몇 대씩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는 몇 대 설치하게 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작년에 17개 했고요.

2022년도에 6개 해서 총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 승강장을 해드리면 좋은데 개당 소요 금액이 스마트 승강장만 5000만 원에 그 안에 뭐 이제 BIT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제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6000만 원이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전부 다 승강장을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규 승강장은 밀폐형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할 때도 밀폐형으로 요구해서 그 아파트 업자가 밀폐형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온열의자와 그다음에 에어송풍기만 넣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00만 원만 투입을 하면 스마트 승강장 같지는 않지만 봄가을은 괜찮고요, 여름과 겨울에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따뜻하고 좀 더울 때는 약간 쉴 수 있는, 승강장 자체가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줄이고 나머지 밀폐형 승강장으로 온열의자를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건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차피 비용은 절약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56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아트 승강장이라고 있거든요.

신규 시책인데 이걸,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걸 이제 저희 시장님하고 해서 정책특보가 당초에 처음에 시책구상보고할 때 정책특보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어떤 특정지역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승강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저기만 봐도 어떤 승강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 승강장에 어떤 그림만 그려서 붙이니까 오히려 더 조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보하고 얘기를 해서 디자인을 우선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밀폐형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5개 정도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게 아산시 표준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표준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 거리라든지 지금 저희가 신정호에는 일반 스마트 승강장 보다는 더 크고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처럼 신정호가 됐든 현충사 승차장이 됐든 인주 공세리 성당 쪽이 됐든 그런 쪽에, 표준은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윤원준 위원** 특색있는 승강장을 만들겠다,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견 또 본예산 때 한번 말씀나누도록 하죠.

그다음에 566페이지 BIS시스템 지금 조달에 BIS시스템은 몇 개 회사가 올라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거는 아직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BIS 시스템이라는 게 두 개 업체…….

○**윤원준 위원** 두 개 업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별도로 어떻게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연동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명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BIS시스템이 버스가 승하차 도착을 알리는 두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견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바꿀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휴대폰에 연동을 시키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에 20번째 업무보고에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상

당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현재 시청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하면 여기서 도보로 몇 분, 몇 번 타고 환승해서 어떻게 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면 휴대폰 앱이나 이런 것이 다 연계가 BIS로 연결이 되고 저희 BIT정보시스템이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BIS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에 여기 OBE라고 했는데 버스 내에 GPS와 연결하는 그것도 이번에 다 교체하게 되면 아마 BIT나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BIS시스템을 노후장비를 교체를 전체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그런게 없었다는 얘기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있었는데 2013년식이 돼 있고 지금 현재도 버스정보시스템도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것도 호환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거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BIS시스템 교체하면 정보시스템은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나머지 BIT, OBE는 다 호환이 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저는 이게 BIS이 회사 자체도 지금 조달 두 개밖에 없으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싸도 이걸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냐는 거죠.

물건이 다양하다든가 그러면 가격도 저렴할 수 있고 자꾸 연식이 바뀌면 호환하는 부분하고 버스하고 호환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다시 호환 시켜야 됩니다.

**○윤원준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래서 저희가 조달을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BIS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향후 10년 이상을 저희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래서 그때 향후에 바뀌는 부분과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대중교통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그럼 제가 한번 페이지 수는 없어도 간단하게, 저기 영인에 환승장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상가 주민 두세 분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다시 했고요.

진정서를 넣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환승 정류장은 꼭 환승 지간선 체계가 아니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를 구한다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이미 발송했고 읍부즈만을 통해서도 접촉을 했고 지난달에 영인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조속하게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인력사무소 하시는 분이 극렬히 반대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세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상가 주차 몇 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또 하상공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정비 사업을 다 해줬고 선도 제대로 그려줬고 그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인이 이번 주에 태국을 가서 그거 끝나고 오면 다음 주에 날을 잡아서 최종 설명을 하고 이번달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사실 거기 지역 주민 한두 명이 민원이 많지만, 지역 주민들이 보면 환승 자리가 거기가 제일 마땅한 자리거든요.

몇 번 이렇게 미팅도 했는데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이장님들 통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해성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거기 상가 연맹에 1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찬성을 하세요, 그

런데 몇 분이 조금, 승강장 설치하는 바로 앞쪽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이견 영인 전체적인 발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는 초지일관되게 진행을 해서 환승정류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과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환승 정류장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이번 달에 설치 다, 선도 다 그리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가 분들 만나서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활성화 추진 해서 향후 추진계획 중 2024년도 다섯 번째 관내 업체 명단 발간 및 배포 200부 해서 보고서에 담아주셨어요.

이 부분 저희 김미영 위원장님과 저희 건설도시위원분들하고 전문 건설인 협회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했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발행했던 전문 건설인 명단을 이 부분을 그때 참석했던 업체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효용성이 다르지 않느냐, 좀 더 실제적인 업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주셨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지금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일단 그 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공문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꼭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건설협회들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느낀 게 실제 건설현장하고 MOU도 맺고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장설명회라고 해서 원청에서 도청 하청 이 부분을 모집할 때 현장에 업체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나 봐요.

그런데 그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지역 업체들을.

거기 가야 뭔가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뢰를 해서 하도급을 받든 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부르지 않으니까 그 할 수가 없다 시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현장 설명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좀 들으셨는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일단 책자를 나눠주면서 그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었다, 현장에 와 보니 어디에 우리와 관련된 업체가 될 참고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잘 몰랐었는데 그건 일단 받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두 번째는 그분들 말씀은 이게 관내 업체를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찾아서 부르기 좀 어렵고 어떻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업체 한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 업체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으니 오든 온 오든 전화는 한번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많은 업체에서 선별한 게 쌀 수 있지 않느냐.

특이하게 한 세 개 업체보다 다섯 개 업체 들어와서 견적을 받더라도 거기서 가장 싼 업체와 얘기하면 좋지 않으나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진행되는지는 확인 점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흥성표 위원** 아무튼 뭐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감사합니다.

**○흥성표 위원**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제4차 기본항만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서류에도 추진 계획에서 이제 2025년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고시에 해양수산부에 이렇게 넣으려는 노력을 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1회 추경 때부터 굉장히 참여했던 이 아산항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없지만 실제로 시가 그 항만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주변 도시들과 했고 충청남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시적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언론보도 9월 6일에 나온 걸 보니 충청남도에서 4개 항만 3조 5000억 국가계획 반영에 도전한다고 해서 그 4개 항 중에 18개 의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나봐요.

이렇게 3조 5000억 중에 아산에 아산항으로는 아니지만 신문보도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평택항에서 발굴한 사업 및 예산은 수소 암모니아 부두 신설 8234억 원, 잡화부두 신규 개발 1793억 원, 양곡부두 신규 개발 2870억, 항만 배후단지 조성 821억, 아산항(무역항) 개발 1조 4902억 원 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국가계획에 넣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보도에 자세히 보면 아산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더니 그 담당자 말씀이 이 부분은



아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국가반영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산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맞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긍정적 답도 없었고 부정적인 답은 약간 셧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항만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본인들이 몰랐던 걸 알아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 단위에서 항만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관련 자문위원들과 관계 부서 사람들과 함께 도청에서 회의를 셧습니다.

충청남도 항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용역사랑 같이 가서 발표를 셧습니다.

아산항 개발의 당위성과 꼭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그때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 그 위원님들도 그렇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국가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충청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셧고 이 부분에서 3조 5000억 중에 아산항(무역항) 개발 1조 4902억이 거의 42%를 차지해요.

국가 항만 계획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이렇게 42%의 예산을, 가액을 잡은 거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 정말 불모지인 척박한 곳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까지 가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칭찬만 하면 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하고 여기 신미진 위원님하고 홍순철 위원님하고 용역 중간보고회에 갔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한계성, 1차, 2차, 3차 항만 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아산항이 왜 4차에 배제 됐는지 탈락된 이유가 갯벌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 항만청 배수관련 당진·평택항 할 때 배수구를 만들어서 준설토가 밀려오는 부분이 아산항 쪽으로 밀려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당진·평택항을 70억을 들여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준설에 대한 대응방안이 실제로 가능성 있는 대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웠다는 두 가지 부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은 물류량 전체적인 것과 양곡부두에 들어가는 다리,

현수교 문제 그다음 평택에서 지적했던 매립지 절단해서 수로를 하는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이 담을 수 있고 4차 항만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용역비가 셨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다른 위원님께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항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차세대를 생각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544페이지, 신정호 동측 도로 교통정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 시설 변경은 된 건가요, 도시계획 변경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업소, 카페 주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언제쯤 정확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21억은 시비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내년 사업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착수가 3월에 돼 있어요.

왜 1, 2월부터는 못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관리계획도 있고 일단 협의보상을 다 하기로 구두로 약속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월부터 보상을 할 건데 그중에서 한 집 정도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보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한 집 때문에 수용절차 하게 되면 그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늘어지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제 그 부분만 우선 남겨놓고,

○**윤원준 위원**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나머지는 다 할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경찰서하고 횡단 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협의 다 끝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이미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신정호 남부로까지라고만 돼 있는데?

기산동 105번지 어디쯤이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장어집 가기 전까지입니다.

○**윤원준 위원** 장어집 가기 전까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장어집도 그전부터 횡단보도 때문에 해달라고 거기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그 앞쪽에 두 개 상가가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확장을 하면 바로 문을 열고 나오면 도로에 접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할 예정이고 그 위에 전원

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절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전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것도 몇 년 동안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것 좀 되게 해주시고 제가 보상협의 이 공사기간을 두고 왜 말씀드렸냐면 신정호가 4월, 5월 되면 봄에 차량이 많아지잖아요, 봄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빨리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량 많을 때 공사하려면 공사할 때도 민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가능하다면 3월 이전에 토지는 보상을 완료 좀 하려고 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 책자에는 없는데 온양대로 3-1로요. 온양 소로로 부를까요, 온양대로로 부를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대로가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대로라고 그걸 30여년 전에 해놓고 강희복 시장님, 복기왕 시장님, 오세현 시장님 넘어서 지금은 박경귀 시장님까지 3-1호선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예산갖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채

를 발행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했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추경 가서 생각해보겠다는 박경귀 시장님의 생각은 도대체가 아산시장입니까, 예산 시장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홍성표 위원님도 그렇고 맹의석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항상 늘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우선은 시장님이 판단할 때 내년 예산에 일부는 담아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80억 정도까지, 그러면 실제로 한 50억 정도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뭐 실과에서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랑 과장님하고도 수없이 얘기를 나눴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그거 폐지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투리로 잘라서 지금 사업한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시민들 재산권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온양1동, 2동 여기 홍성표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온양1동에서 태어났고 이 도로가 가장 왕성하게 일

어났던 관광특구지역이에요.

관광특구지역에 2차선 도로를 해놓고 있다?

이건 심각한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안 한다는 자체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온양2동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 온양4동을 거쳐서 온양5동으로 가서 6동을 넘어가는 원도심에 온양3동만 빼고 나머지 전부 지역구가 여기 물려있어요, 3-1호선에.

그런데 이걸 박경귀 시장님이 추경에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어떤 사업이 더 먼저냐는 거예요.

저는 박경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내년 예산 책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위원회의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럼 내년에 건설도시위원회는 다 늘 겁니까, 일 안 하고?

예산을 여기에 더 담아줘야, 도로가 복지인 것을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님도 아산항 때문에 얘기했지만 결국 아산항이라는 게 뭐예요?

물동량 움직여서 세수를 확보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땅 보상 나가면 양도소득세 나가고, 건물이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세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인구 늘어나면 주민세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계산은 안 하고 300억 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요.

박경귀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투자를 해서 거둬들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많이 받고도 사는 이유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를 세상에 온양 원도심에 모든 사람이 걸어다니는, 차량이 다니는 이 도로에 이걸 사업을 우선적으로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한다?

어떤 게 복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상 20일 월요일 제가 거기서 서명 받은 날, 그날 화재 났습니다.

제일타워 옆에 단독주택예요.

오후 5시에 거기에 소방차가 바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벽모퉁이 사이라서 네 대가 지체돼서 가고 있었어요, 굴다리 바로 밑에서.

그러면 이 도로가 결국 생명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5분 늦게 가면 죽는 거예요.

소방차 7분, 10분 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 원도심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는 거예요.

신도시에 비하면 여기 상태 한번 보시라고요.

신도시들은 전부 새로운 도로에 새로운 건물에 복지혜택을 다 받으면서 원도심 사람 못 받게 만드는 건 박경귀 시장님이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행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 사업에 분명히 올해 담아서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 정례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천막 칠 겁니다, 용화 농협창고 앞에서.

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 도로를 한다는 건지 답변을 꼭 받고야 말겠습니까, 제가.

누구 하나 박경귀 시장님한테 옳은 소리를 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말을 우리는 못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조선시대 인조입니까?

제가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시민들 다 느끼고 있는데도 시장이 모른다는 건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데 왜 한 명만 모르냐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홍성표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도로가 복지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되고 확장이 돼야 주민들이 상업활동도 하고 교통도 좀 원활하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도로가 복지다라는 말씀 저희가 새겨서 최대한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뭐 애써주시고요. 분명히 제 뜻을 기획예산과도 여기 와 있지만 잘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도 또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예산 권한은 집행부에 다 있지만 시민이 이렇게 원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다 원하는 이걸 숙고하지 않겠다?

이건 절대로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워서라도 저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특히 여기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나갈 거니까 박경귀 시장님 빠른 결단을 내리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44페이지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신정호 동쪽 도로 교통정체 개선 소요예산이 21억인데 그러면 이렇게 시비 전액으로 하는 이 부분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 대상은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산시에 도로가 필요한 곳, 정말로 현실적으로 시급한 곳은 과장님도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힌 부분은 일사천리 추진해서 하시면서 실제로 10년 넘게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되고 시민들의 혈류 역할을 해야 하는

도로는 계속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강희복 전전 전임 시장님 때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그 당시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당시에 받은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만 수립을 한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 시비 예산서 보면 지방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방투자심사 받으신 적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게 이제 구간을 저희가 단 구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사업을 한꺼번에 갈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홍성표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정말 저희 아산시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방투자심사를 먼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이 도로만큼은 지방투자심사를 먼저 해주시고 사업계획안을 전체 전 구간 짜서 지금 지방투자심사를 해주시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지방투자심사를 빨리 의뢰를 하라고 그러냐면 제9조 재정 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에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 아산시는 재정적으로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일년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돈이 450억에서 55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의회에서 한 목소리 나올 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 모든 분들이 우선 시작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는 말씀만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서류이니 사업계획안을 잡으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방투자심사를 올려주시고 그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다른 큰 도로나 소로 이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방투자심사에서도 무난히 저는 통과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빨리 통과를 시키면 지금 이 엄동설한에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이 거기에 천막치고 서명 받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의회의 의원이 대의기관으로 정해진 법과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의 도로

를 깔 수 있는데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 이걸 직권남용은 열심히 하면서 직무유기하시는 겁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이 부분 오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투자심사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 통과하자마자 지방채 발행해 주시길 간곡하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국도 확장사업 4개소 해서 충무교 개축사업 있어요, 맨 밑에 추진상황 및 계획 중 실시설계 완료가 10월 이었는데 완료 됐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낙찰자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조달청에 계약은 안 돼 있고 낙찰자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다 나오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다 끝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 끝났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다 끝나서 공사업체까지 지금 선정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실시설계했던 용역 도면하고 전체적인 내용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조감도하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저번

주에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바로 밑에 국지도70 호선 음봉~송환 4차로 확포장 추진계 획입니다.

이거 지금 최종 대상지 확정고시 됐고 상반기 설계 착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착수가 돼서 전국적으로 대상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라든가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내년에는 실시 설계 착수가 가능 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거 회의록에 남겼거든요.

실제로 그 현장을 가 보면 성환 공원 묘지 가기 전에 커브 부분은 거의 청룡 열차 수준이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쪽 길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아산 시민들은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목숨 걸고 다니셔요, 진짜.

그 부분이 국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선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보수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는데 실제로 충남도에서도 4차선 확장이라든가 그런 게 확정이 된 구간은 아무래도 그런 다른 노선보다 조금 게을리하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게을리 하는 게 지금 1년 6개월째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또 내년 실시 설계 용역 끝날 때까지 또 최하 6개월에서 1년인데 정말 매일 아침 새벽부터 그 길을 노동자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산시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분들이 그 도로가 국도인지, 우리는 왜 이런 세금을 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매일 가야 되지,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할 때 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국도로 4차선 개선사업 확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중복투입을 못 해서 이렇게 되니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주시옵시고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데 만에하나 정말 초행길이신 분이 큰 사고라도 나시면 그 부분은 이번에 한번 더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인가요, 종건소인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충남도입니다.

○**홍성표 위원** 충남도 종건소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종건소에 꼭 공무원으로 실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니 사업 때까지 그 커브 부분 정말 요철이 청룡열차 같이 막 움직여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부분까지 있는 1부분은 좀 부분이라도 보수를 부탁드렸으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문서를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온양 중로3-61호 원예농협 개설 공사 이거 제가 8대 때부터 시작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어디 까지 진행되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도 참 답답한데요. 거기도 대의적인 기관이라서 어느 정도 협조가 잘 될 줄 알고, 이제 4차로 였던 게 2차로로 줄어들면서 저희는 원예조합이랑 당초에는 조합장 선거 때문에 조합장 선거 끝나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그냥 또 기다렸는데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또 자기들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에서도 또 자기들이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탁상 감정을 해도 그 가격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단은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지금 도시과에서 4차로로 다시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절차가 실과 협의 까지 해서 1월 중에는 토지 수용을 우선 2차로만이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가서 우선 거기 변씨 마을 이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불편한 것부터 해소를 하고 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다시 4차로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까지 토지 수용을 가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해야 4차선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 권곡지구라든가 모종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그쪽 계획 중인 곳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는 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그 위쪽은 다 되고 75m 구간만 저희가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 2차로를 좀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업체는 선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예조합이랑 그게 처음에는 대화로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를 했는데 법적으로 해야지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 보면 2023년 3월 착공 1구간이라고 돼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1구간 착공은 했는데 보상협약이 안 돼서…….

○**홍성표 위원** 회사는 돼 있는데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다년간 민원이고 또 아산 IC가 개통을 했잖아요.

교통량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사거리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사업하실 때 정말로 아이들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고 시민들의 교통량이나 사고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50페이지입니다.

온양 중로3-7 구아식스 확포장공사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23년 11월 건축물 해체 공사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뭐 그대로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요즘 법이 좀 바뀌어서 건축물을 해체를 하려면 그걸 건축사에 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금년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까지 다 완료를 하고 해체 설계를 별도로 또 해야 돼요, 건물이 커서.

그 부분까지 다 해서 현재 업체까지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이 돼서 일단 그걸 철거 업체가 철거하고 공사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해서 우선 공사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 초에 철거만 되면 바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제 지역구고 온양1동과 2동 사이에 온양온천역에서 나오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서민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인도조차 없고 늘 사고가 상존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또 주민들은 갈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지나다니

셔야 돼요.

일방통행을 하든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 인도가 확보되고 차량들을 일방통행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차량을 막고 150m, 100m 가면 또 우회전, 좌회전 차량들이 있으니까 차선을 막고라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안과 보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후에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건 저희가 철거할 때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위탁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어제 갑자기 전체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탕정디스플레이시티 2에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인프라 교통이 전무하여 관련기업들이 입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2 공사가 멈춰있는 지금 해당 지원 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산시청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입주가능기업,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 지역 첨단기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12월 16일 2시에 아산 탕정 콜롬버스 1차 현장에서 구분소유자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산탕정 콜롬버스 1차 수

분양자 드림.’

저 혼자 이거 12통 받았어요.

이 도로는 아산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쪽은 저희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

○홍성표 위원 이 콜롬버스 1차 수분양자 이분들이 있는 건물하고 들어가는 도로가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콜롬버스가 이쪽, 용두리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쪽은 지금 현재 예전에 탕정일반산업단지에서 분양을 해서, 물론 도로는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는 다 받은 도로입니다.

○홍성표 위원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아산시에 민원이 들어온 건 없어요?

저희 시위원들한테만 이렇게 집회하신다고 보내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한테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없어요?

한번 현장 나가셔서 확인을 좀, 콜롬버스라는 빌딩이 있나봐요.

이 부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 일단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과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요, 페이지 수가 552페이지입니다.

신항리 일원 윤보선 생가 마을 포장 공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제대로 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지금 현재 윤보선 생가 쪽까지 해서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윤보선 생가 앞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했고요

공사만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전직 대통령의 생가마을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도로 포장도 제대로 잘 돼 있습니다.

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길 거기 보면 삼각형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기에는 혹시 이정표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해서도 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거기는 특별히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 계획은 없고요.

그 가운데 남은 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먼저 이장님과도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장님이 요즘 시골에도 인력이 없어서 공원을 조성해도 그걸 풀을 베고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

다, 평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도저히 마을에서 그걸 관리할 인력이 없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래도 그 상태에서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원과나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부지가 넓으니 거기다 조경이라도 좀 해서 자동차 다니는데 시야에 불편한 부분만 빼고 해서 어쨌든 자투리 공원도 요즘 많이 하는데 공원같이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이장님께서 과장님을 통해서 도로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이 자자하길래 나름대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둔포중학교하고 거기 도로 보상은 나왔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보상 됐고 현재 업체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요.

이번 달 정도에는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거기도 보상은 다 된 거라…….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한 필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 필지만 토지 수용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지역 주민들도 도로를 빨리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착공은 11월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삼을 못 뜨고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올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과장님 벌써부터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올해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거기 용화동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동네 이제 5동은 다 알고 있죠?

5동 통장님은 다 알고 있나요, 내용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주민설명회 했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거기 지금 농협 삼거리에 보면 정자가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김남철 통장님인가 그런데 거기 혹시 해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는 건지, 위치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건 확인하셔서 그 동네분들은 나무가 죽어있는데 그 나무는 존치해야 된다는데 나무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번 회전 교차로 할 때 공원녹지과인가요, 산림과인가요?

공원녹지과죠?

그럼 거기 상의 하셔서 그 부분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 좀 통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이번에 할 때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상가 주민분들은 혹시 특별히 민원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까지는 수목이전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은 그런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하여튼 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용화동 백자아파트 사거리 거기도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지금 회전교차로 요구가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요구가 있어서 타당성용역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용역 결과는 대략?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건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작은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타당성 용역발주는 했고 아직 업체 결정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안 됐고? 내년 2024년도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2024년 한 2, 3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결과 나오는 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557페이지고,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사거리 저희 자전거 도로 끝

에 기산동 쪽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거기 혹시 잇는 사업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방도623호 옆에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도로로 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일단 회전 교차로까지는 연결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회전교차로까지만?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경찰대 입구 창암리 마을회관 앞에.

○신미진 위원 그쪽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초사동 사거리에서 경찰대 입구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창암리 마을회관 앞.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거기까지는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고 지금 신정호를 축으로 한 바퀴 돌 수 있게 도로구간이 623도로에서 끝나서 저쪽으로 가는 구간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잇는 사업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 그쪽 사업은 시작 않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자전거 사업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면 좋은데 무료개방은 아니라 사실 자전거 빌려 타는데 금

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 타고 오는데 그 자전거를 타기에는 구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현재 그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정호 전체를 4.8km를 순환하는 도로망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경찰대 입구 회전 교차로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옥련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춘 쪽으로 해서 현장을 저희는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이 없지만 그 2차선 도로의 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넓어요, 차선 폭이.

차선이 최소 폭은 3m를 확보해주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차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 1.5m를 확보하려고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차선도색비라든가 이 정도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차로 확보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은 기산동 경찰교육원 쪽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회전교차로 들어서면서 거기도 물론 구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있던 자전거 도로가 끊긴 상황에서 거기를 잇고 나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예산 신경 쓰셔서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55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해서 시비 2억 들여가지고 구령지하차도하고 공수지하차도 이렇게 업무보고해주셨어요.

우리 아산시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상도로에 대해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국가공모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처음에는 시비로 현재 올려놨는데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비 내시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프로 매칭이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50대 50입니다.

○홍성표 위원 50 대 50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국비 2500 내시됐습니다, 한 개소에.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게 충북 오송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면서 대전시에서도 이번에 4일 전에 발표가 났어요.

전체 대전시 하상도로 22곳 침수 원격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한다고 방송에 나왔고 어쨌든 홍수라는 게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한계성이 있고 이런 국비사업이 있을 때 공모와 내시되는 부분에서 아산시가 모든 곳을 전수 조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들이 가는 곳도 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온천천이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집중호우가 되면 곡교천 물이 빠지지 않을 때 온천천 물이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거기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 부분도 작은 시설들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온천천 관련된 건 현장을 확인도 해보고 생태하천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먼저 나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57페이지입니다.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도로 구축 추진 현황 중 맨 밑에 2023년 7월 관계기관 협의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삼교천 제방 단절구간(대음양수장) 노선계획 이거 7월에 관계기관 협의 어떻게 잘 마무리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농어촌공

사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양수장 펌프가 지나는 라인에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저희가 하면 얼마나 걸리죠, 그 기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두달이면 되지 않을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반기 중에 그러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한두 달 안이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대음양수장 근방에 놓여준 공사 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이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니다.

받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허가 받고 그다음에 단절구간 중에서 하천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금강청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거 제가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만 연결되면 아산의 명품 정말, 박경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도로 구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업무적,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 올라왔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만약에 저기하시면 설치를 좀 해주시고 또 아산시에는 이번에 아산시 체육회에 자전거 연맹

이 이제 정식 단체로 가입을 했어요.

MTB든 로드든 많은 동호회들이 이제 체육회에 정식소속이 됐으니 그 연맹을 통해서 자전거 인프라에 필요한 또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간담회를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7, 8월경에 신정호 루트102 거기부터 커피숍이 하나 또 새로 생겼어요, 대형이.

보리밭집 가기 전에, 장어집 가기 전에, 왼쪽에.

그런데 아까 시설과하고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거기서 빠트린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면 지금도 배수로가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로가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여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옆에 토목 공사도 하고 있고 이 커피숍이 들어오면서 거기 내가 알기로는 물이 엄청 쏟아져요, 배수관로로 해서.

그게 산에 내려오는 물을 아마 이쪽으로 내린 것 같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집수정 같은 곳 보면 거기가 막혀서 물이 넘쳐나고 지금도 겨울인데 물이 나와서 도로가 얼



어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에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아까 한영석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3차로로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할 때 여기 먼저, 보상 나가면 여기 먼저 배수관로, 우수관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도 위험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도 얼마 전에 아침에 갔는데 도로에 물이 나와서 얼어 있더라고요, 거기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그 라인만 지금 계속 물이 넘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제가 생각하는 현장하고 같은 곳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원준 위원 그 라인에 쪽 붙어서 그래요, 지금.

그런데 커피마시러 또 새로 들어오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준설이 하면 준설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습시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이 준설하라고 이미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윤원준 위원 이번에 확장할 때 관리과가 나중에 또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공사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시설과에다 얘기해서 거기 우수관로 전부 정비하신 다음에 해놔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게 시공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과는 예산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담아서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둔포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안을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잘 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렇게 하고 페이지 556페이지 관대사거리 7단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국도 병목지

점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단계가 4군데고, 7단계가 6군데가 금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단계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착공까지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7단계는 우선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 진행될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저도 지금 다각도로 건의도 하고 요청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플랜카드 이렇게 거창하게 그려놔서 플랜카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착수가 됐는지 용역이 들어가던지 하면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6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해서 이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경찰서 앞에 사거리 신호등 부분에서 올레드 신호등을 활용해서 대각선 신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8대 의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아산시 용역 결과서에는 올레드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경찰서와 교통심의 협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경찰서와 협의 중인데 일단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그 현장에 가면 유엘시티에서 경찰서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어르신들이고 학생들이고 전통시장 들어가는 횡단 보도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신호를 안 지키고 그냥 다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서있으면 하루에 그런 경우가 정말 스무 번 삼십 번이 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건 경찰서에서는 그 신호를 올레드로 했을 경우 차량 정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실제로 어려운

지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것이 더 큰 건지 시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통심의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562페이지고요.

공영주기장 조성 해서 다른 건 다 올라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위치는 현재 용역 중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현재 용역 중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사업 조성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조성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고 12월에 최종 용역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치는.

○**신미진 위원**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줄 알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러니까 이사업 계획은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대략 추정 금액을 사업비로 적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 아직 정해지지 않

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공시지가하고 토지보상비가 있고 시설비까지 해서 산출을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사업비는 향후 사업비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아, 향후에 추진을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호섭** 예, 26년까지.

○**신미진 위원** 아니, 예산은 있는데 아무리 향후사업비라고 해도 지금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제가아 어디에 하실 건지.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 끝나고 나서 정해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용역 끝나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 어쨌든 그쪽에 토지보상비 예측하고 시설비 예측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대상지는 한 여섯 군대를 정했습니다.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쪽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다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우선지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이러면 2순위 협의를 자꾸 해 봐서 그쪽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아직 최종용역보고가 안 나와서 저희가 단계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현재 아산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없고 처음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신정호 방축동 여기 제1공영주차장 지금 증축공사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윤원준 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지금 여기 하루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용객은 제가 추측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신정호 1공영주차장 타워를 현재 운영 않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라 지금 하면 위험성 있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원래 12월부터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원래 1층 2단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1층 2단으로 있을 때도 우리가 신정호 행사가 있어도 차량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

그리고 앞에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앞에 상가들 거기 차없는 거리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 지금 전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빈 토지, 상가 분양 받고 쓰지 않는 토지들, 그 토지들에도 주차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한 길 건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식당 쪽으로 오든지 공원 쪽으로 가든지 해서 원래 이용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주차 대수 늘리는 것도 어쨌든 잘 하셨는데 다음에 관리가 문제인 거예요.

앞이 차 없는 거리인데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도 무심히 가다 보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거기 식당 안에 골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지금 안 되

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건지.

개선방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저희가 이걸 증축할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신청호 조성한 데 보면 현재 건물이 안 들어와서 빈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들 부설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분담금을 받고 대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추측은 앞으로 거기가 건물이 들어설 걸 대비해서 미리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줘야 나중에 주차난이 없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차 없는 거리로 돼 있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고 통제를 해서 주차장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의 숙제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숙제로 남는 거예요, 해결방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할 건가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이거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었는데 어쨌든 건설기계다 보니까 포클레인 들어가죠?

그다음에 덤프트럭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기들 주차장을 처음에 허가할 때는 주기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시내 인근 쪽에서 공영주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도심지에 보면 주택 밀집가나 아니면 아파트 건설기계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혐오스럽고 좀 위험하고 쓰레기 많이 버린다, 그러니 단속해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밤샘 단속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윤원준 위원** 그거 단속되면 과태료 얼마 나갑니까, 1차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과태료 1차 위반 했을 때는 5만 원, 2차 때는 10만 원, 3차 때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산시가 광범위하고 건설기계가 6000대가 있습니다, 아산에.

그렇다 보니까 직원 두 명이서 단속을 해도 이걸 다 스톱을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 조성해가지고 이리로 댈 수 있게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졌을 때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건 저희가 용역 쪽에 넣었는데요, 이걸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건설기계 연합회에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지 차후 논의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직 그건 결정이 안된 상태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공영주기장이 있을 경우 여기 사용료를 받아서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 공용주기장 이거 가지고 인허가를 냅니까, 건설기계?

처음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윤원준 위원** 예를 들어서 공용주기장이 있다 치면 인허가 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원칙적으로 차량별로 별도의 주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거랑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연계 안 되고, 인허가는 상관없다? 따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신미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지는 검토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시유지도 검토해봤는데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13000㎡, 한 4000평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설기계가 크다 보니까 시유지 4000평 이상 되는 데가 적합한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건설기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내 인근 쪽에서 있길 원할 거 아니에요.

보통 아파트에 살고 하니까 차를 대놓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러니까 이제 먼 거리는 좀 저기 앓고, 가까운 거리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도심지하고 인근 거리 교통 소통이나 이런 게 원활한 데를 한번 찾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원도심 지역하고 신도심 지역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두 군데로 할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원준 위원** 근데 원도심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둔포, 탕정, 영인, 인주 그런 데는 어떻게 북부권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00대가 되는데 이걸 전체 수납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내 지역에, 도심 지역에 보면 서 있으면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사업 제안을 하나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지금 공용주차장 확보

때문에 제가 용화동 공원에 5분발언에도 공원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부지가 있었고 사실 실과에서 전부 다 내 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안 됐는데 서로 과가 이제 토지 소유는 시유지지만 공원이자 보니까 공원녹지과고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유지가 상당히 없잖아요, 시내 인근에도.

별로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경우 경매가 나온다는가 토지 같은 게 경매가 나온다는가 우리 시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요?

○**윤원준 위원** 조성을 위하든 어떤 교통행정과가 쓰기 위해서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주든 뭘 하기 위해서 구옥 같은 걸 사든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재산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제가 알기로 천안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천안시는 하고 있고 제가 실례로 신창 신곡리 경로당 할 때도

경매로 사서 진행했습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경매로 사게 되면 보통 80%에서 70%까지 우리가 20% 하향하면 살 수 있거든요, 요즘 매매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경매로 나와 있는 토지들을 시내 인근 원도심의 토지를 미리 사 놓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사업할 때 협의 매수하게 되면 토지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땅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근처에 부지를 그냥 사게 되면 쉬워요, 땅 사기가 평수도 넓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공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실과에서 그런 걸 미리 추진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이 방안을 생각하셔서 사실은 이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뒤편 전문적으로 건설교통국이 대중교통과가 쓰든 누가 쓰든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걸 국장님이 이제 들으셔야 할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해서 사러 가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안 팔면 그만인 거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재산을 우리가 시유지로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도심은 또 해결 방법이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로 어떤 건물을 샀을 경우에 뭐 좋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름한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선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한번 그런 사업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위원님께서 금방 경매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굉장히 정말 원도심에 얼마나 절박하면 경매물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하나가 사유지, 국유지, 도유지 중에 기재부나 캠프에서 지금 현재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쌈지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차량 한 8대에서 10대 정도 딸 수 있는 부지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주차장으로 좀 활용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면 캠프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사용하려면 캠프 재산이니 임대료를 내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라, 그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매 금액과 또 캠프에서 저희가 사는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캠프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라.

그래서 임대료를 매년 내서 저희가 시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예산 대비 너무 호용성이 없으면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사업 제안을 했듯이 시비로 구입해서 사유지로 계속 원도심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의 문화 혜택이나 주차 공간이나 나중에 활용방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저도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둔포 구도심 지중화 사업 공사 했었잖아요.

거기 일방통행으로 지금 해냈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민원 사인도 3-400명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일방통행인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준공은 돼 있지만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시다, 거기.

교통사고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



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요청한 게 작년에 요청해서 1월에 제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때도 상가 분들이나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해드린 건데 이걸 지금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현장 상황을 더 보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번 다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말씀을 해서 가결되면 다시 한번 원상해놓고 만약에 부결되면 저희가 좀 난감합니다, 솔직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지금 최고 관건이 뭐냐면 일방통행이면서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똑같아요.

일방통행으로 하나 안 하나,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차선도 일방통행도 좋지만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독박 씁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지금도 많고 일방통행이라 써놨고 화살표도 해놨지만 그 다니는 습관으로 인하여 일방통행인지 왕복차선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행정상 좀 그렇게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에서도 또 통과해서 반대

요건을 세웠고 지역주민들이 사인도 한 300여명 사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폐지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이 난감하지만 그래도 사고나면 큰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게 또 고민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생각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순서이나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홍성표 윤원준 홍순철 신미진

○청가 위원(1인)

김미영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수현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토지관리과장 신명식